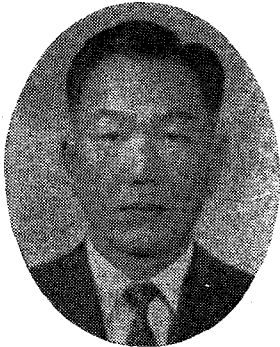


電力開發과 民間火電

—民間電力開發의 必然性을 中心으로—



東海電力開發株式會社
社長 申 鉉 稿

앞으로의 電源開發은 주로 民間發電에 맡기고 韓國電力은 送配電施設의 擴充에 注力하라는 要旨의 지난 9月 5日字 朴大統領 指示로 이 나라 民間火電은 一躍 時代의 脚光을 한몸에 받는 存在가 된듯한 느낌이 있고 그 以後 國內輿論 또한 電力事業을 舉論하는데 있어서 民電을 中心으로 이야기를 展開하기에 인색하지 않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9月 5日字 指示는 其實 民間에 의한 火電建設을 積極적으로 支援推進하라는 67年 12月 14日字 朴大統領 指示로 나타났던 政府方針을 再確認하고 그 동안의 事態推移에 따라서 한걸음 前進한 段階에서의 電政方針을 指示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昨年 年末 가까이 積極支援의 對象으로 發足하였던 民電은 今年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나라 電源開發의 將來를 도맡는 使命을 委任 받게 되었음을 闡明하신 것으로 解釋된다.

한동안 無制限送電이다 電力消費獎勵이다 하여 電氣의 桃源境에 노니는 듯한 幻覺에 醉한 것도 一場春夢, 電力事情惡化一路라는 悲鳴으로 生産業界로부터 一般家庭에 이르기까지 온통 야단이 나는 가운데서도, 그 被害를 가장 深刻하게 받는 洋灰業界 指導層에서는 電力難解消을

官에만 의지하는 態度에서 奮然히 脫皮하여 自力으로 百年大計를 이룩하고자 熟議를 거듭하기 시작한 것은 위에서 말한 政府方針의 發表 보다도 훨씬 앞서의 일이었으니 洋灰業界 先輩諸位의 先見之明은 이제 와서 더욱 뚜렷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분들의 고이 여기심과 부르심을 입고 筆者 또한 그 計劃에 參與하여 民電 第I號로서 昨年 그믐께 呱呱의 소리를 올린 東海電力의 設立을 서둘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던 것이 바로 昨年 이 무렵이었음을 想起하며 本誌를 通하여 業界 여러분을 다시 對하게 되니 一沫의 感懷를 금할 수 없는 바이다.

電力事業의 生理

모든 事業이 그렇듯이 電力事業 또한 獨特한 生理를 지니게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第一 먼저 꼽을 것은 그 公益性이라 할 수 있다. 筆者가 自身の 淺學非才를 돌보지 않고 敢히 이 事業에 뛰어난 것도 企業의 大前提인 營利보다는 公益性을 앞세워야 하는 電力事業의 生理를 알기 때문이었다.

電力事業의 公益性이라는 것은 電氣가 國家와 國民生活의 모든 分野에 걸쳐 直接間接으로 作用한다는 데 緣由하는 것은 勿論이지만 이러한 事實이 事業面에 投影될 때 그 事業은 發起人的

誰何나 資本의 源泉을 떠나서 오로지 需用家 全般의 忠僕이 되고 國家施策에 副應하는 所任에만 專心하여야 된다는 命題로 集約된다.

따라서 電力事業은 國家의 利益과 國民의 福祉向上을 幅넓고 銳敏하게 洞察하는 感覺과 頭腦를 가지는 高次元의 綜合企業이어야 하므로, 그 觸角을 八方으로 뻗치는 複雜한 機構와, 映像을 모조리 分析하고 判斷하는 神經組織의 不眠不休를 要求한다.

또한 公益事業이기에 政府의 積極的 支援를 期待할 수 있는 電力事業은 反面 政府의 嚴重한 監督 밑에 놓여야 하므로 이를테면 富者집 만아 들처럼 귀하면서도 自由가 없는 身勢가 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電力事業은 그 存立이 어느 程度 保障된 反面 適正線 以上の 利潤은 許容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들어야 할 것은 電力事業의 投資는 그 規模가 龐大하고 建設에 長久한 時日을 要한다는 特性이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나라가 電力事業을 政府의 經營아래 두고 있는 것도 먼저 말한 公益性과 아울러 이와 같은 特性 때문에 民間投資를 期待할 수 없는 實情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美國·日本 等の 先進國에서는 이제 大部分이 民營化하였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先例를 따르고 있는 趨勢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民電이 本軌道에 오르게 된것은 여러가지 뜻에서 慶賀할 일이면서도 識者나 企業家 사이에 아직도 疑懼心이 깨끗이 가지지 않고 있는 理由 역시 이 投資規模의 龐大性에 있다고 본다. 基幹産業의 基幹인 電力事業은 이와 같이 出產부터가 거창한 事業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出產을 거친 電力事業은 그칠 줄 모르는 成長을 要求하는 生理를 가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人類文明은 에너지 消費量의 增大와 발을 맞추어 왔고 앞으로 그 消費量은 끝없이 늘어감에 따라 人類文明은 發達을 거듭할 것이다. 萬若 어떤 電力事業體가 이런 原理를 外面하고 安逸한 停滯와 妥協한다면 그 業體는 그로서 呼吸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칠 줄 모르는 成長을 위하여 電力事業體는 適期適量의 資金流通으로 血液循環을 維持하고 새로운 氣風과 技術의 導入으로 新陳代謝

를 營爲하고 貯藏도 直接輸出도 不可能한 製品 즉 電力을 遲滯없이 消化할 수 있는 市場의 確保로 排泄의 異常이 없는 健康을 要求한다.

韓國의 民間火電

人類歷史의 어느 部面 못지않게 有爲變轉이 尤甚한 電力部門에서 昨今에 가장 두드러진 現象은 위에서 말한 兩次的 大統領指示로 表面화된 電源開發 二元化政策, 다시 말해서 電力供給을 韓電의 既存 및 既存工 發電所와 더불어 民間의 新規發電所에 맡기는 政策의 確立實施라 할 수 있겠고, 그 政策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이제 第2段階에 접어든 感이 있는데, 위에서 풀이한 것과 같은 特異한 生理를 갖는 電源開發事業이, 이나라 風土에서 民間企業으로 자라는 앞날은 果然 어떠한 것이 될는지, 한번 저울질 하여봄직한 일이다.

맨먼저 떠오르는 疑問은 民間資本畜積의 深度가 얕고 企業倫理의 傳統確立을 보지 못한 韓國에서 莫大한 資本投入을 要하고 公益性이 짙은 이 事業의 充分하고 健實한 成長을 期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疑問에 대한 解答은 우리 政府에 관한限 이미 肯定的으로 나와 있기에 民電育成을 再三 闡明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 肯定의 根據는 그러면 어디에 둔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經濟成長을 감안 했을 것이다. 第一次五個年計劃의 成功的完遂와 第二次五個年計劃의 順調로운 進陟은 우리나라 民間도 이제 社會間接投資部門에 進出할 段階에 이르렀음을 갈음하는데 매우 鼓舞的인 指數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여기서는 民間資本의 量과 質의 兩面을 考察했을 것이다. 量에 있어서 그 龐大한 事業을 完全獨立의으로 감당할만큼 增大하였다고 보지는 못했을 것이고 質에 있어서 消費品의 獨寡占으로 自身의 肥大만을 꾀하는 買辦資本의 性格을 完全脫皮하였다는 判斷도 선뜻 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適當한 支援만 있으면 能히 지탱할 수 있는 素地와 適切한 善導로 긴 眼目を 갖추기에 인색치 않은 年輪과 知覺을 具備한 것으로 斷定할만큼은 되어 있다.

事實에 있어서 民電育成에 어느 程度의 財政金融과 稅制上的 保護策을 前提하는 것은 先進國에서조차도 不可避한 일이다. 問題는 그 保護策이 實際로 奏効하여 民電이 健全하게 育成되고 그럼으로 인하여 保護策의 必要性이 漸次로 止揚되어 드디어는 民電이 完全自立하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或者는 反問할 것이다. 保護나 支援이니를云謂할 바에야 구배어 民電을 育成할 必要性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條件의 支援과 保護의 경우라도 民間에 주어지는 편이 效果와 名分에 있어서 앞선다는 自由經濟 一般論과 民電에 주어질 支援이나 保護策은 그 質과 量에 있어서 政府의 直接負擔이 되지 않는 政策的 間接手段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點을 想起시키고 싶다.

如何든 이미 씩이 트고 일이 돌기 시작한 韓國의 民電은 어데까지 자랄 것인가? 위에서 電力事業의 成長에는 休止와 限度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民電도 이런 生理를 支障없이 營爲할 수 있을 것인가? 그 成敗를 갈음하는 要素는 實로 複雜多岐하다. 民電 自體의 實力培養과 合理的 運營은 말할 것도 없고 먼저 말한 民電에 대한 政府의 支援은 차라리 初期現象에 不過한 것이며 우리나라 政治와 經濟와 社會生活 全般의 長時日에 걸친 綜合的成敗가 곧 韓國民電의 運命을 決定지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祖國의 運命이 바로 民電의 그것이다. 우리의 政治가 安定과 發達을 이룩하고 우리 經濟가 成長을 거듭하여 國民의 福祉가 向上될 때 民電은 거침 없이 자랄 것이고, 자라는 가운데 한걸음 앞서 자라서 이런 國利民福을 先導하고 觸發하게 될 것이다.

近者 一部에서는 電力投資의 過剩을 두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今年末 우리나라 總發電施設容量은 127萬KW에 達할 것으로 發表되었는데 日本의 그것은 約 4,400萬KW로 알려졌다. 이것을 比率로 나타내면 1對35에 가깝다 두 나라의 國土와 人口의 對比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施設容量이 우선 絕對值에 있어서 實로 前途 遼遠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國民所得과의 對比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68年度의

I人當國民所得의 目標은 135弗인데 對하여 發電施設容量은 前記한 바와같고 日本의 65年度 國民所得은 1,000弗로 發表되었는데 그 當時의 施設容量은 3650萬KW였던 것으로 報道되었다. 兩者를 比較할 때 國民所得은 約 1對8인데 反하여 發電容量은 1對24라는 不均衡이 나타난다. 즉 現在狀態로는 우리나라 發電施設은 國民所得에 應分의 寄與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不足으로 인하여 國民所得增大에 制約이 加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71년까지의 第2次電源開發計劃에서 最終年度의 施設目標을 417萬KW로 잡았는데 이것이 過大策定된 것이라는 論難이 있다. 아닌게 아니라 이計劃에서 前提한 電力需要의 平均增加率 29.6%는 일찌기 前例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高率이기는 하다. 日本의 경우, 九電力會社가 發足한 以後 15年間의 平均增加率이 11.8%였다고 하니 前記增加率이 얼마나 意慾의인計劃인가는 쉽사리 짐작이 간다. 그러나 年間成長率을 考察하는데 있어서 先進國과 後進國은 根本的으로 區分되어야 할 한가지 要素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基準以上の 電化率을 갖추고 現代式 產業構造와 生活樣式의 普遍化된 先進國에 있어서는 電力需要의 增加는 人口增加와 產業施設의 增大에서 緣由되는 것이 大部分이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要件이 갖추어지지 못한 新興國家의 경우는 人口와 產業施設의 增大 以外에도 農漁村의 電化率上昇, 產業構造와 動力體制의 轉換, 生活樣式의 現代化等이 急進하는 經濟成長과 相乘作用을 일으켜 先進國에서는 想像도 할 수 없는 高率의 電力需要增加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의 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第2次經濟開發計劃이 成功的으로 完遂될 때 電力需要는 計劃以上の 增加率로 急増할 公算도 있을 뿐 아니라 萬若에 電力投資가 不振하여 그 需要를 充足하지 못한다면 모처럼의 總力도 電力不足의 理由 하나 때문에 所期の 成果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點에 想到할 때 지금 電力過剩投資를云謂할 계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끝으로 民電育成의 意義는 무엇인가에 言及하고자 한다. 무릇 電力事業의 目標은 豊富하고 信賴性 있는 電力을 廉價로 需用家에 供給하는

에 두고 있다. 量의 豊盛은 新規電源의 繼續開發로 保障할 수 있고 信賴性은 系統의 安定이 前提가 되며 價格의 低廉은 發電과 送配電의 原價節減에서 期約된다.

新規電源開發에 있어서 朝鮮電業과 그를 繼承한 韓電은 지금까지 참으로 피땀어린 努力을 계속하여 왔고 앞으로도 當分間은 그 努力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努力은 이제 어느 程度 限界點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電源開發 못지않는 大規模投資를 要하는 電源開發에 送配電施設의 擴充이 그동안 電源開發에 뒤진 現實을 直視할 때 電源開發 負擔의 一部를 民電에 넘긴다는 것은 國家를 위해서나 韓電을 위해서나 時宜에 맞는 處事라 할 수 있다.

電力需要의 開發, 電力系統의 安定, 電力損失의 減少等의 各部門에서 絶對的인 送配電施設의 投資는 原則的으로 電源開發과 10對10의 比率로 併行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實績은 10對3에 不過하였다 하니 이 部門의 擴充이 얼마나 時急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껏 抑制되고 있는 新規需用을 積極開發하고 16.8%라는 高率의 電力損失을 最少限으로 줄이고 化學工業等 高度의 電力安定을 要하는 分野의 需用需家까지도 安心하고 電力을 使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民電의 電源開發擔當으로 얻

어지는 韓電의 餘力을 送配電部門에 果敢하게 投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發電原價面에 있어서도 民電의 育成은 그 意義가 큰 것이 있다. 우리 나라 販賣電力價格이 高騰하여 國民生活에 負擔을 주고 生産原價를 높여 低物價政策에 支障을 주고 國產品의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주 指摘되는 事實이지만 政府의 適切한 支援으로 誕生하는 民電이 嚴重한 行政的統制 밑에 最新式大單位發電所를 合理的으로 運營할 때 그 發電原價는 低廉할 것이 明白한 事實이고 그것은 곧 韓電의 對需用家販價에 反映되어 國民生活과 國家經濟의 全般에 걸쳐 바람직한 作用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建設初期부터 當場 그 効驗을 期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數年間に 우리나라 電力料金도 國際水準까지 引下될 것은 確實視되며 이것은 民電育成에 관한 政府施策의 餘德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三千萬이 結束하여 前進에 前進을 거듭하는 韓國의 前途는 洋洋하다. 그 前進의 推進力이 되고 先導가 되는 民電의 前途 또한 洋洋하다. 洋洋한 前途에는 그러나 반드시 試鍊과 苦難이 숨어 있게 마련이다. 祖國과 運命을 같이하는 民電의 第1號를 責任맡은 筆者에게 業界諸位의 指導와 鞭撻이 베풀어질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27面에서

을 바란 것이 아니냐고 反問하지 않을 수 없다. 資本主義經濟의 成長期에 있어서 獨占을 主로하는 資本의 罪惡이 얼마나 甚하였던 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先進國의 뒤를 팔어간다고 그 잘 못된 點까지 本本을 必要는 없는 것이라면, 獨占規制에 대한 立法措置는 있어야 마땅할 것이 아닌가 이제와서야 떠들석하고 있지만 獨寡品의 規制라는 것은 하나도 새로운 말이 아니다. 적어도 先進國의 程度에서 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다.

多幸히 시멘트는 對象品目으로 되어있지 않지만 注意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施策當局의 警覺心을 높이고자 하는바 이지만 시멘트는 獨寡品이 되기 쉬운 品目이기 때문에 事前에 自制하는 바 있기를 부탁하여 두고자 한다. 그리고한 마디로 말한다면 業界는 借款이라는 빛을 빨리 清算하고 國際競爭力을 強化해야 한다는 점이다 政府더러 經營하라고 해 보기까지 해보았으니,

充分히 알 일이지만 事情이 거기에 까지 이르렀던 裏面의 경위를 생각하더라도 自主獨立이 先行條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政府의 惠澤을 받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되면 弱點을 잡힌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 당장은 스스로의 立地條件을 굳이는 것이 앞서는 일이겠지만 生産過剩으로 무서운, 競爭이 불게 된다는 것은 눈앞에 매달린 事實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經營合理化는 이過程에서, 自然히 이루어질 노릇이지만 甬을 길을 海外輸出하나 밖에 없다. 똑같은 生産業者들인지라 그 競爭은 不得已한 노릇이겠지만 海外輸出에 있어서는 共同努力의 길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對外輸出問題에 있어서 建設問題에 앞장을 서고 있는 當局이 應當한 責任感을 가져야할 것이다. 더욱이나 生産工場은 모두 政府의 計劃事業으로서 對外借款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責任의 過半이 그 편에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建設의 先導事業이니만큼 共同努力이 成果있기를 빌어마지 않는다.